

2025 **10**
제24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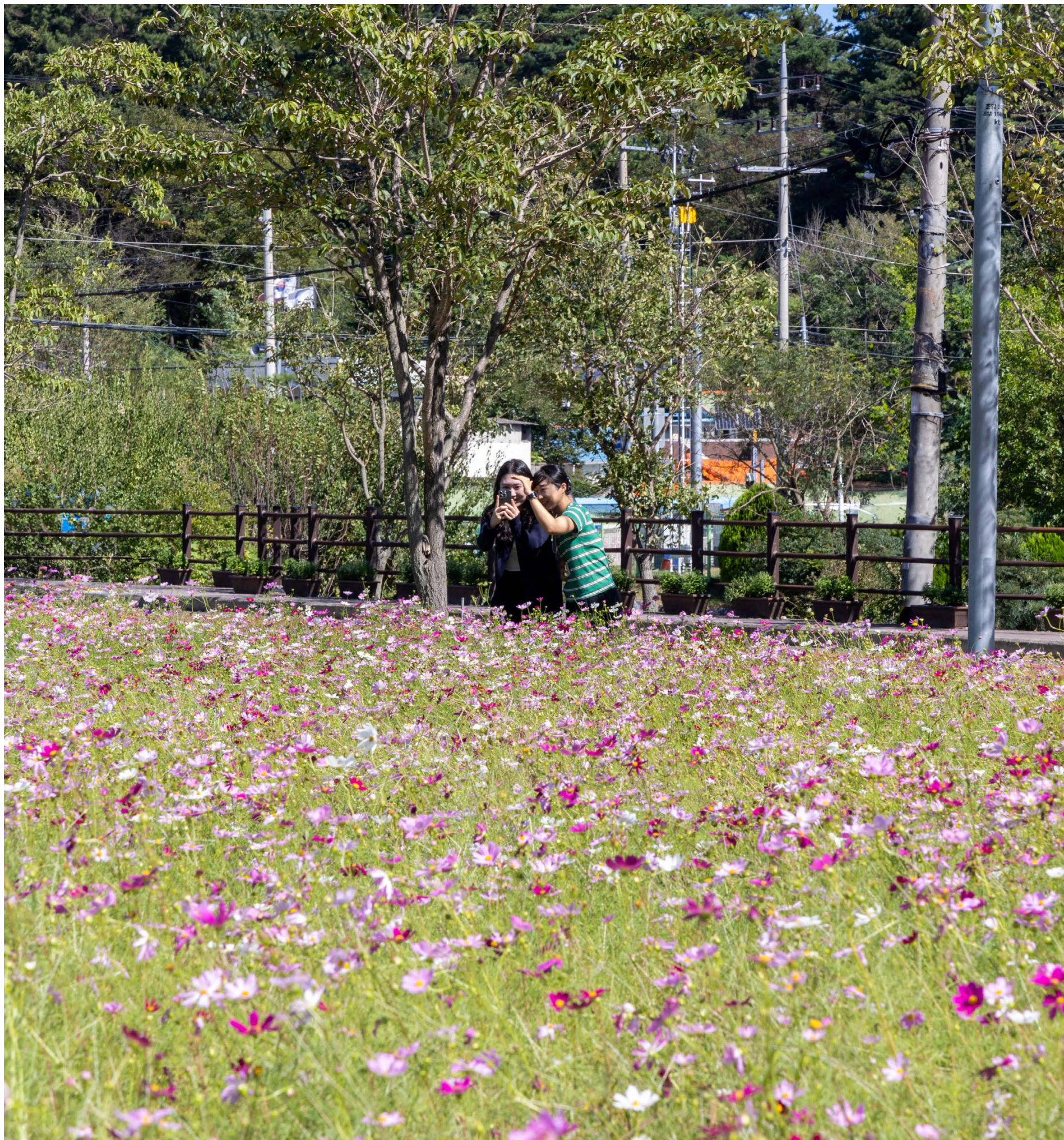
대덕라이프 QR



대덕구카카오톡 채널 QR

대덕 라이프

내 **일상**이 **즐거움** 대덕구



대덕 라이프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대덕라이프 제호 서체 : 글고운 캘리그래피 박진희 作

- 03 구정소식
- 05 십자말풀이
- 06 대덕구 부서를 소개합니다
- 07 대덕구 맛집을 찾아서
- 08 열린의정
- 10 [대덕구기관장협의회] 이기남 국민연금공단 북대전지사장
- 11 [단체 인터뷰] 대덕구 자율방범대연합회
- 12 대덕톡톡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폭염, 열대야, 모진 비바람이 기승을 부리던 여름이 지나가고 높고 푸른 하늘, 코끝을 스치는 바람결 등 어느덧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추석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한여름 무더위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토록 뜨겁던 햇볕이 우거진 숲과 그늘을 만들고, 마침내 알찬 열매를 만들어 더 짙은 단맛을 남겨주듯 이 가을 구민 모두가 풍성하게 수확하시길 기원합니다.

흔히 추석을 ‘마음의 고향’이라고 표현합니다. 고향 집에서 반가운 가족들을 만나고 수확의 기쁨을 나누며, 옛 추억과 정을 느끼는 전통 명절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석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 추석은 황금 같은 긴 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찾으시는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향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대덕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10

대덕구청장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발행인 대덕구청장
편집인 미디어홍보과장
발행처 미디어홍보과(TEL:608-6606)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홈페이지 www.daedeok.go.kr
발행일 2025년 10월 1일(제249호)

조웅래 (주)선양소주 회장 홍보대사 위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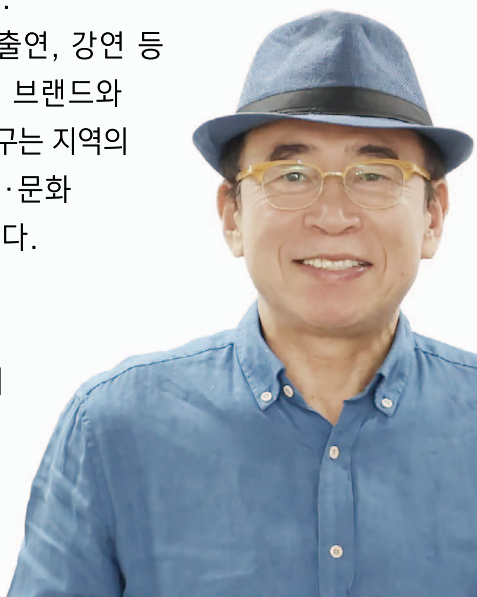
전통주 산업 발전·계족산 향토티길 조성 등 지역사랑 공로 인정

대덕구가 지역 대표 기업인 (주)선양소주를 이끌며, 전통주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온 조웅래 회장을 대덕구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조웅래 회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해 왔다.

특히 대덕구 대표 명소인 계족산에 2006년부터 매년 10억 원을 들여 향토티길을 조성·관리해 구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치유·휴식 공간을 제공했다. 이 향토티길은 현재 전국적인 맨발 걷기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 같은 공로로 지난해 대덕구 명예구민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이번에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조 회장은 향후 구정 홍보영상 출연, 강연 등 대외활동을 통해 대덕구의 도시 브랜드와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구는 지역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고 관광·문화 분야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조웅래 (주)선양소주 회장은 “대덕구 홍보대사로 위촉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덕구의 아름다움과 잠재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 발전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덕구-대한적십자사, 재난 취약계층 마음회복 지원 ‘맞손’

기후재난·전쟁 트라우마 등 맞춤형 심리 지원… 통합돌봄 서비스 확장
어르신·장애인·보훈대상자 집중 관리… 회복 프로그램 등 제공 예정

대덕구가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지사 회장 송하영)와 ‘재난 취약계층 마음회복 지원 동행 협약’을 체결하고 심리회복 통합지원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번 협약은 기후 재난과 같은 일상 속 위기부터 전쟁 경험으로 인한 외상까지 다양한 재난을 겪은 주민들에게 맞춤형 심리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이 협력해 취약계층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대덕구는 대상자 발굴과 행정적 지원을 맡고, 대한적십자사는 사업을 총괄 운영한다. 실질적인 상담과 사례 관리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담당하며, 전문 인력을 배치해 상담과 회복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신체 회복 속도가 느리고 돌봄 공백 가능성이 높은 어르신,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통합돌봄 대상자는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동 홍보·교육도 병행하며 주민 인식 개선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송하영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회장은 “전문적인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불안과 트라우마를 완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통합돌봄의 영역을 정신건강까지 확장하고, 나아가 지역 내 심리회복 서비스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대.해 서포터즈’ 출범

홍보·캠페인·부스 운영 등 자발적 기부문화 확산 시동

대덕구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서포터즈 명칭은 ‘기.대.해 서포터즈’로 정했다. 이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는 대덕구에 해주세요’라는 뜻을 담았다.

대덕구는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3년 차에 접어든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주민 참여를 넓혀 지역사회 발전과 기부 공감대 형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번 서포터즈단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퇴임 통장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지역 내·외 행사와 각종 회의에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이벤트·홍보 부스 운영 등을 통해 자발적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지 증진에 활용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기부액의 30% 이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덕구는 앞으로 도 지역 자원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부 참여를 독려하고,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생계형 체납자 경제 회생 지원 나선다

장기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부동산 12건·차량 207대 등

대덕구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돕기 위해 압류 실익이 없는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한다.

구는 지난 8월부터 공매 수수료 등 처분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장기 압류 재산 전수 점검을 진행했으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부동산 12건과 차량 207대를 선별했다.

이들 건은 지난 9월 12일 대덕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행 중지가 확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압류는 해제 절차에 들어가며, 이후 다른 재산이 없을 시 5년간 소멸시효가 진행돼 체납세금 징수권이 완전히 소멸된다.

이에 따라 구는 장기간 압류로 일상·영업에 제약을 받아온 영세 납세자들이 금융거래 정상화, 재취업·재개업 등 재기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중지 이후에도 부동산·예금채권 등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시 체납처분을 재개한다.

한편, 구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신용정보 연계 등 강력한 징수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납세자보호관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 조정

이중주차 등 기타 구역 운영시간 연중 오후 10시 → 오후 8시로 단속
초등학교 정문 등 6대 구역은 24시간 유지... 주민 편익·안전 환경 제공 노력

대덕구는 주민 체감 불편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을 일부 조정, 시행한다.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인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6대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반면 이번 변경으로 △황색복선 △안전지대 △자전거전용도로 △중앙선 주차 △이중주차 등 기타 구역은 현행 연중 ‘오전 7시~오후 10시’에서 ‘오전 7시~오후 8시’로 운영시간이 단축된다.

구는 지난 4월 기타 구역 운영시간을 ‘24시간’에서 ‘오전 7시~오후 10시’로 한 차례 조정된 뒤 약 5개월간의 운영 결과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재조정에 나섰다. 6대 구역을 상시로 두고 기타 구역은 시간제를 운영하는 방식은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주민의 생활 여건을 함께 고려한 조치다.

구 관계자는 “이번 운영시간 조정은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심각한 주차난과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편익 증진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는 제도 변경 사항을 구청 누리집,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안내문 등을 통해 안내하고, 단속 민원 대응 매뉴얼도 함께 정비해 혼선 최소화에 나설 예정이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도로교통상의 중대사고 및 화재의 발생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2025년 9월 10일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 운영됩니다.

1. 6대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 연중 24시간

※ 촬영간격(차량정지상태) 1분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도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장 좌우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2. 기타 구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황색복선 (6대 구역 이외)

안전지대

자전거전용도로

중앙선주차

이중주차

현행 연중 07~22시(11:30~14:00 단속유예) 촬영간격(차량정지상태) 1분

변경 연중 07~20시(11:30~14:00 단속유예) 촬영간격(차량정지상태) 1분

중리시장 제3공영주차장 준공... 주차난 해소 기대

지상 3층·총 97면 규모 입체식 주차장 완공

주민 불편 해소·주차 편의 증진·중리시장 상권 활성화 등 기대

대전 대덕구가 ‘중리시장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마쳤다.

석봉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 선정

시각·청각장애인 맞춤형 독서환경 조성... 정보 접근성 강화 기대

대덕구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주관하는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에 석봉도서관이 최종 선정돼 시각·청각장애이용 보조기기를 확충했다.

석봉도서관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확대기, 청각장애인을 위한 공공 보청 지원장비 등을 도입, 종합자료공간에 설치를 완료했다.

장비는 이용자 등록이나 별도 절차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기 사용 안내도 비장애인 동반 가족·보조인까지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화했다.

대덕구는 이번 장비 확충을 계기로 장애인과 독서취약계층의 자료 열람, 전자정보 검색, 문화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넓힐 예정이다.

한편 석봉도서관은 큰글자도서 확충, 도서관 방문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한 ‘책나래’ 서비스 등 취약계층 맞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겹겹의 숨결: 겹쳐진 존재, 이어진 삶... 대덕문화관광재단, 이범주 작가 전시회 개최

‘작은미술관 신탄진’ 전시 활성화 목표

대덕구 거주·활동 예술인 창작, 작품 전시 지원

대덕문화관광재단이 10월 1~24일 지역경력 예술인 이범주 작가의 ‘겹겹의 숨결: 겹쳐진 존재, 이어진 삶’ 전시회를 개최한다.

지역경력예술인전은 대청호 인근 ‘작은미술관 신탄진’의 전시 활성화를 위해 대덕구에 거주하거나 대덕구에서 활동 중인 지역예술인의 창작 및 작품 전시를 지원한다.

이범주 작가의 ‘겹겹의 숨결’ 전시는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탐구하는 전시로 고독과 어울림, 차이와 조화가 공존하는 인간의 풍경을 비추며, 관람자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가 어떻게 타인과 이어지고 겹쳐져 있는지를 성찰하게 한다.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한편, 대덕문화관광재단은 이번 전시를 기점으로 작은미술관 신탄진을 활용해 지역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대덕구의 문화예술을 꽃피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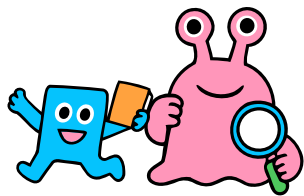
중리시장 제3공영주차장은 중리동 363-23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2775.88㎡ 규모로 총 97면의 주차 공간을 갖춘 입체식 시설이다.

중리동은 그동안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민과 시장 상인들의 불편이 극심했던 지역으로, 이번 주차장 준공으로 중리시장 접근성이 향상되고, 불법 주정차가 감소해 차량 정체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구는 앞으로도 균형 잡힌 도시 인프라 구축과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퀴즈풀고 선물받고!!

QUIZ TIME



접수 기간 2025년 10월 1일(월) 오전 9시 ~ 10월 15일(수) 오후 11시 30분까지

참여 방법 십자말풀이 정답을 작성하여 제출(1인 1회)

당첨자 발표 개별 문자 안내

정답을 맞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6명을 선정해 기프티콘을 선물해 드립니다.

※ 정답 제출 이후에는 답안 수정이 불가하오니, 제출 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③				
①									
				③					
								④	
	②								
②						④			
			⑤						
	⑤								

대덕라이프 십자말풀이 이벤트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취득하며,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당첨 및 선정 확인 등 이벤트 운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 됩니다.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에 동의하실 경우에만 참여 부탁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이벤트 당첨 및 선정 확인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벤트가 종료된 후 1년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할 권리 : 이벤트 당첨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 상품 받으실 분의 개인정보 오류나 부재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 : 대덕구 미디어홍보과(☎608-6606)

십자 말풀이

가로퀴즈



- 음력 팔월 보름을 일컫는 말로 가을의 한가운데 달이며 또한 팔월의 한가운데 날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연중 으뜸인 명절은?
- 명사, 추석날 밤이나 정월 대보름날 밤에 여자들이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추는 춤.
- 명사, 원고를 쓰기 편리하게 만든 종이. 자수(字數) 계산이 편하도록 일정한 규격을 갖추고 있다.
- 명사, 법률 성년이 아닌 사람. 민법상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이르며, 혼인한 미성년은 ○○○○에서 제외된다.
- 명사, 물 국화과의 한해살이풀. 6~10월에 흰색, 분홍색, 자주색 따위의 꽃이 가지 끝에 한 개씩 핀다. 특히 가을에 자주 볼 수 있으며, 지난 9월 26~28일 장동만남공원에서 장동계족산 ○○○○ 축제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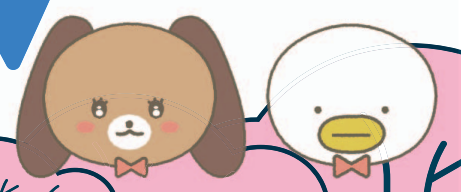
세로퀴즈



- 명사, 1. 물체를 밀어 앞으로 내보내는 힘. 2. 목표를 향하여 밀고 나아가는 힘.
예1) 이 로켓은 기존의 로켓보다 ○○○이 열 배나 더 강하다.
예2) 그는 특유의 결단력과 ○○○으로 사건을 척척 해결해 나갔다.
- 명사, 맷쌀가루를 반죽하여 팔, 콩, 밤, 대추 따위의 속을 넣고 모시조개 모양으로 빚어 솔잎을 깔고 찐 떡. 본래는 추석 때 햅쌀과 햅곡식으로 이를 빚어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며 조상의 차례상에 바치던 명절떡이었는데, 요즘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즐겨 먹는다.
- 명사, 하늘이 높고 말이 살핀다는 뜻으로, 하늘이 맑아 높푸르게 보이고 온갖 곡식이 익는 가을철을 이르는 말.
- 대덕구 내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사는 동네를 안전한 동네로 만들기 위해 봉사하는 단체의 이름은?
힌트 : 10월호 대덕라이프 11면 단체명.
- 명사, 목돈을 만들기 위해 조직된 협동 집단의 모임.
예) 그들은 다음 휴가 때 다같이 해외로 놀러가기 위해서 ○○○을 조직했다.



정답제출하기



대덕구 부서를 소개합니다



미디어홍보과

도서관운영과

미래전략국은 인구정책과, 문화관광체육과, 미디어홍보과, 도서관운영과 등 총 4개 과(課)로 구성돼 있다. 이번 대덕라이프 10월호에는 미래전략국의 미디어홍보과와 도서관운영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미디어홍보과(본관 2층)



미디어홍보과는 지난 7월 1일 신설된 과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행정 메시지를 주민에게 보다 직관적이고 입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략 소통 전담 부서다.

미디어홍보과는 홍보팀, 언론협력팀, 정보화팀, 통신팀 등 총 4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홍보팀은 대덕구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등 소셜미디어를 관리 운영하고, 구정 일반 및 각종 시책 개발과 대덕구의 소식을 전달하는 대덕구민 기자단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대덕구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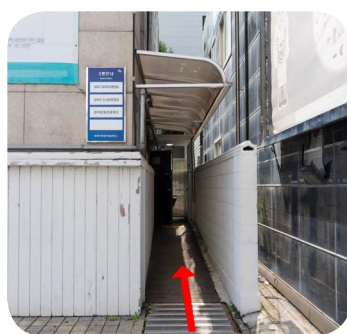
다음으로 언론협력팀은 언론사 취재지원과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구정 소식지를 제작·편집하고 있으며, 정기간행물 신고, 공보 발간, 구정 홍보 사진·동영상 촬영 및 취재를 담당하고 있다.

세 번째로 정보화팀은 대덕구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정보화 기획 및 정보보안·보안 시스템과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통신팀은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및 관리,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통신시설 공사설계 및 감독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도서관운영과(오정동 하나은행 2층)



도서관운영과는 기존 사업소체제로 운영되던 도서관과 평생학습 기능이 각각 분리되면서 신설된 부서다. 즉, 기존 평생학습 기능은 같은 미래전략국 소속인 인구정책과 평생학습팀, 교육협력팀에서 담당하며, 도서관운영과는 '도서관 운영'을 전담하고 있다.

특히, 본청 소속으로 새롭게 개편되면서 구민들에게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서다.

도서관운영과는 도서관정책팀, 석봉도서관, 안산도서관, 송촌도서관 등 총 4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도서관정책팀은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사립 작은도서관 관리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석봉도서관과 안산도서관, 송촌도서관은 각 도서관의 도서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도서관별 독서진흥사업과 독서문화축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산의 진미 버섯의 향이 가득한 버섯찌개맛집

중리동 밥상마루



작은 사랑방 같은 외관 너머로 전해지는 향긋한 국물 냄새와 고소한 밥 냄새가 가득한 밥상마루(대표 이순옥). 대덕구 중리시장 서문 공영주차장 바로 앞에 위치한 이곳은 지난 2017년 문을 열고 장사를 이어가고 있다.

밥상마루는 김치찌개, 제육볶음 등 간단한 식사는 물론 자연산 버섯찌개, 코다리찜, 코다리지리탕 등 밥도둑이자 술 도둑 메뉴들을 선보여 소규모 회식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 집의 인기 메뉴는 자연산 버섯찌개다. 자연산 버섯으로 유명한 충북 괴산군 청천면에서 직접 공급받은 고품질의 표고버섯, 송이버섯, 쓰리버섯 등을 냄비 한가득 넣고 양파와 무, 다시마 등이 들어간 야채육수가 어우러지며 시원한 맛을 낸다. 특히, 국물에 스며든 버섯의 감칠맛이 일품이며, 밥상마루만의 매콤한 양념 소스는 버섯찌개에 칼칼한 맛을 더해주고 있다.

또 하나의 인기 메뉴는 코다리찜과 코다리 맑은탕이다. 먼저 매콤달콤한 코다리찜은 코다리 살이 부드럽게 잘 익어서 젓가락으로 살짝만 눌러도 살이 쫄쫄 발라지는 데다 양념 맛이 정말 매력적이다. 너무 맵지도 않고 적당히 칼칼하면서도 단맛이 살아 있어서 밥과 함께 먹기에 딱 좋은 것은 물론 술안주로도 제격이다.

밥상마루에서만 맛볼 수 있는 코다리 맑은탕도 손님들이 즐겨 찾는 메뉴다. 깔끔하게 반건조한 코다리와 꽃게, 조개 등 싱싱한 해산물, 그리고 감칠맛 나는 양념과 채소가 제대로 어우러진 맑은 국물은 해장하러 왔다가 그 맛에 넘어가 다시 술을 부르는 ‘술 도둑’ 호칭이 딱 어울리는 메뉴라 할 수 있다.

밑반찬 역시 가지볶음, 도토리묵, 콩나물무침 등 다양한 반찬을 매일 직접 만들어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 집은 동치미, 아삭아삭한 묵은지, 파김치 등 김치 종류도 다양한 데다 남다른 김치맛을 선보이고 있다.

이처럼 환상적인 손맛을 선보이고 있는 이순옥 대표는 “특별한 레시피나 비법은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가족들과 내가 먹을 밥처럼, 아끼지 않고 만들고 있습니다”라며 “손님들이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가시는 게 가장 큰 행복이자 보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리 수술을 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연말까지는 점심시간은 예약 손님만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손님들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라며 “빨리 건강을 회복해 손님들에게 최고의 맛과 정성이 담긴 넉넉한 한 상을 제공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 대전 대덕구 중리로75번길 22-17(중리동 363-13) / 042-627-7945
- 제육볶음 1만2000원, 김치찌개 8000원, 동태찌개 1만원(이상 2인이상)
- 자연산버섯찌개(小) 4만5000원, 코다리찜·코다리 맑은탕(小) 3만3000원
- 코다리비빔밥, 코다리물막국수 각 9000원
- 영업시간 : 11:00~22:00

전통방식으로 콩의 고소함을 가득 담아

덕암동 은진손두부



대덕구 신탄진권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어디인지, 음식은 어떤 맛인지 아는 노포(老鋪)가 있다. 대덕구 덕암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있는 은진손두부(대표 송인규, 오경숙 부부)다.

지난 1996년 10월 오픈한 이곳은 30년 가까이 오직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은진손두부는 주인은 물론 단골들도 대를 이은 추억으로 가득한 두부·닭요리 전문점이다. 이 집은 국산 콩으로 만든 메뉴가 주를 이룬다. 특히, 이 집의 최대 강점은 매일 콩을 불려 직접 갈고 일일이 저어가면서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실제, 이 집의 순두부찌개는 말랑말랑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는 순두부가 푸짐하게 들어가 있는 것은 물론 적당히 숙성된 김치가 배합되면서 김치의 시큼함과 순두부의 고소함이 어우러져 입안을 행복하게 한다. 청국장 역시 옛날 방식으로 직접 띄워서 만든 것을 사용함으로써 탱글탱글한 콩 알갱이가 톡톡 터지는 식감과 구수한 맛이 일품이다.

순두부와 청국장 맛은 은진손두부를 처음 문을 연 송인규 대표의 어머니 이복례(93) 어르신 손맛에서 비롯됐다. 세월이 흐르면서 연로하신 어머니를 대신해 아들인 송인규 대표가 식재료 공급과 서빙을, 오경숙 대표가 시어머니의 손맛을 이어받아 주방을 책임지고 있다.

이 집은 돼지두루치기도 인기 메뉴다. 집에서 직접 담근 고추장에 갖은양념을 넣고 듬성듬성 썰어 넣은 돼지고기 특유의 부드러운 육질을 맛볼 수 있다. 이밖에 달짝지근하고 칼칼한 양념이 닭고기와 부드럽게 섞여 만드는 닭볶음탕도 손님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은진손두부는 기본 반찬도 풍성하다. 고사리, 깻잎나물, 멸치볶음, 무생채무침 등 7~8가지의 반찬을 매일 바꿔 넉넉히 내어준다.

특히, 상추, 깻잎, 호박, 시금치, 무, 배추 등 채소의 약 80% 정도를 식당 인근 텃밭 등에서 직접 농사지는 것으로 충당하고 있다. 나머지 고기류와 주요 식재료는 농수산시장에서 송인규 대표가 직접 장을 봐온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은진손두부 음식 가격은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도 7000~8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성비 최고의 맛집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작지만 정성 가득한 마음으로 이웃사랑도 실천하고 있는 송인규·오경숙 부부는 “내 가족에게 해주는 정성과 마음을 담아 손님들에게 넉넉한 집밥의 인심을 나누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즐거운 마음으로 변함없이 손님들을 섬길 것”이라고 말했다.



- 대전 대덕구 덕암로234번길 30(덕암동 51-11) / 042-932-1744
- 순두부, 청국장, 된장찌개, 콩비지장, 콩국수, 김치찌개 각 7000원
- 동태찌개 8000원, 두부김치 1만2000원, 돼지수육(예약주문) 2만원,
- 돼지두루치기 2만원, 닭볶음탕 5만원, 오리백숙 5만원
- 영업시간 : 11:00~22:00(브레이크 타임 14:30~16:30) / 휴무일: 매주 일요일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제보 접수 10월 31일까지 의회 홈페이지·우편 통해 가능



2025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를 받습니다

제보기간 2025. 9. 1.(월) ~ 2025. 10. 31.(금)

제보내용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예산낭비 사례,
시책 개선 및 건의사항 등

제보방법

- 대덕구의회 홈페이지(구민참여-행정사무감사 의견수렴 게시판)
- 우편(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 의회사무과)



대덕구의회(의장 전석광)가 지난 9월 1일을 시작으로 10월 31일까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행감) 의견 수렴을 위한 제보를 받는다.

대덕구민을 비롯한 누구나 의회 홈페이지(council.daedeok.go.kr) 또는 우편(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대덕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것을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 인적사항은 비공개 처리된다.

전석광 의장은 “보다 효율적이고 효능감 있는 행감을 위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면서 “현장에서도 구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감은 집행기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통해 행정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의회 고유 권한 가운데 하나로, 오는 11월20일부터 열리는 제29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진행된다.

기고

사지말고 입양하세요



양영자 의원

가족의 사전적 의미는 결혼, 혈연, 입양 등을 통해 형성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인식은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사는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어느덧 1000만 시대를 맞이했다. 반려동물은 엄연한 가족 구성원일 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사회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이면에는 경제적인 사정과 반려견의 노령화 등으로 반려동물과 지속적인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느껴 유기 또는 학대가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대전동물보호센터에는 주인에게 버림받은 2000마리의 동물들이 매년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로 인해 센터에 들어온 동물 중 3분의 1은 입양을 통해 새 가족을 찾지만, 적지 않은 수가 보호센터에서 안락사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등록 대상 동물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부터 의무 시행 중이지만, 등록률은 70% 정도로 높지 않은 편이다. 동물등록제의 개선 필요성과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교육지책으로 유기 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에게는 무료 내장형 동물등록, 무료 전염병 키트 검사, 목욕·미용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등 입양 후 소요 되는 비용의 60%를 지원(25만 원 이상 사용 시 최대 15만 원)하고 있다.

최근 부산시에서 기술 기반 등록체제로 반려동물과 시민이 공존하는 도시 공동체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마이크로칩을 기반으로 한 현행 등록제의 낮은 등록률과 한계를 지적하며 시민 친화적이며 동물에게 부담이 적은 ‘비문 인식 기술’과 같은 생체정보 기반 등록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전시도 기술 발전을 반영한 등록 방식을 도입해 반려동물과 시민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대전동물보호센터 1곳에서만 입양 및 입양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5개의 자치구에 유기 동물 입양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해 시민들에게 가까이에서 유기 동물 입양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지원한다면 유기 동물 입양 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유기견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 개선 캠페인이 중요할 것이다. 유기견은 분양한 것보다 잔병치레가 많고 공격성이 강하며 전 주인과의 유대관계로 인해 입양 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편견이 적지 않다. 하지만 실제로 유기견을 입양한 시민들의 다수 의견은 입양 후 동물병원에 데려가니 아픈 곳이 없이 튼튼하고 사랑과 관심을 통해 새 가족으로 안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

한 생명을 입양하는 일은 따뜻한 선택인 동시에 책임이 따르는 일이다. 유기 동물의 보호와 입양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주목 이 조례



조대웅 의원

‘반값 축구장·방치차량 요금’ “공공체육시설 활성화, 주차난 해소 기대”

조대웅 의원(국민의힘, 비례·송촌·중리동)이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번 일부 개정은 대덕구민이 평일 오전 6~9시에 을미기체육공원 축구장을 이용하면 전용사용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체육시설 사용 허가 우선순위 규정을 신설한 게 주요 내용이다.

조 의원은 ‘대덕구 주차장 조례’도 일부 개정했다. 이를 통해 무료 공영주차장 내 방치차량과 장기주차(48시간 이상) 차량에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공공체육시설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주차장 이용 질서를 확립해 지역 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영자 의원

실내공기질 개선으로 구민 건강 챙긴다 예방·관리 체계 강화 위한 조례

양영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예방과 관리 체계 근거가 담긴 ‘대덕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은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공기질 관리 기준에 맞춰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필요시 구청장이 공기질 관련 보고를 요구하거나 현장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기질 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선 공기정화설비 설치, 환기시설 개선 등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양 의원은 “실내공기질은 구민의 일상 건강에 직결된다”라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승연 의원

가임력 보존 지원 대상 확대 추진 대덕구 거주기간 1년 이상 → 거주 여부로 단순화

유승연 의원(무소속,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대덕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가임력 보존 지원 대상을 기존 대덕구 거주 1년 이상에서 거주 여부로 단순화한 것이 골자다. 대상의 명확성을 위해 기준을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서 ‘의료적 판단에 따른 사람’으로 정비했다.

또 집행 혼선과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위해 중복 제한 규정 중 단서조항인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른 난임치료 시술비와 중복 지원 허용’을 삭제했다.

유 의원은 “가임력 보존은 단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면서 “지원 대상 확대로 많은 구민이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효서 의원

장애인 자립·사회참여 기반 마련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박효서 의원(더불어민주당,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대덕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는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일상뿐 아니라 사회·직업·여가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전용 교육시설 설치·운영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지원 △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다.

박 의원은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자립·사회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권리이자 사회적 책무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면서 “장애인 평생학습권이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준규 의원

‘지속가능한 대덕구’ 조성에 앞장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이준규 의원(국민의힘, 오정·대화·법1·법2동)이 지속가능한 대덕구 조성을 위한 ‘대덕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는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 현황, 자원 조달·투자 계획, 폐기물 감량·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 경제 추진을 위한 근거가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대전시장에게 제출하고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의무를 명시했다. 또 법적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했다.

이 의원은 “자원 순환은 환경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더 다양한 조례 제정과 정책 개발로 지속가능한 대덕구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대덕구기관장협의회

이기남 국민연금공단 북대전지사장

북대전지사, 2004년 신설돼... 대덕구민 노후 보장·지역 경제 활성화 앞장
지속가능성 위해 제도 홍보·복지 사각지대 위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시행
‘국민연금 헬프라인’ 운영 등 청렴 강조... 공공기관 청렴도 8년 연속 우수 등급 달성
“국민연금제도, 고령화 시대 노후 준비의 기초... 많은 분이 행복한 노후 준비하시길”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18세~60세 국민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다. 특히, 전 세대가 상호 부조를 통해 모두가 함께 준비하고 누리는 공공복지를 실현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최근 100세 시대를 맞아 안정적인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다. 대덕라이프 편집자는 이기남 국민연금공단 북대전지사장을 만나 국민연금의 중요성, 핵심 추진사업, 지역 상생협력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국민연금공단 북대전지사의 관할지역과 담당업무를 간략히 설명해 주신다면?

국민연금공단은 전북 전주 본부를 중심으로 7개의 지역본부, 112개 지사로 구성돼 전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북대전지사는 지난 2004년 신설돼 대덕구와 유성구를 관할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대덕구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27만명, 수급자는 2만5693명에 이르며, 사업장은 6만6471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덕구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연간 약 1592억원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대덕구민들의 노후보장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Q.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가장 효과적으로 국민연금을 소개해 주신다면?

국민연금제도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장기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평균 기대수명은 83.5세로, 이는 2000년도 76세 대비 7.5세, 2010년도 80.2세 대비 3.3세가 늘어나는 등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대수명이 늘어날수록 노후 준비를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물가가 올라도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물가상승률에 따른 연금액의 증가는 사적연금에서는 볼 수 없는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2025년 1월부임 이후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해주신다면?

우선,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연금 개혁 등 제도 홍보를 통한 주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연금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대전지사는 2026년 3월 본격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30일부터 대덕구와 함께 장애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65세 미만의 장애인도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 기 남

국민연금공단 북대전지사장



Q. 국민연금공단은 전 직원들에게 청렴 문화를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요 내용과 실천 방안을 간략히 소개해 주신다면?

국민연금공단은 임직원 행동강령과 청렴한 업무처리 및 공직윤리 실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는 ▲청렴교육 및 캠페인 ▲공직자 자기절제 ▲투명한 경영 공개 ▲익명 제보 시스템 운영 등입니다. 특히, 임직원의 부패행위 등에 대한 내·외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국민연금 헬프라인’을 운영하는 등 부패 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에서 8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Q.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 및 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대표적 사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북대전지사는 매년 지역 복지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기부금 전달 및 봉사 활동을 펼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현재까지 북대전지사 직원들로 구성된 ‘눈빛나눔 봉사단’은 시각장애인 점자책 제작을 위한 재능 기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10년간 대전 지역 복지관과 연계해 도서 기부 및 20여 권의 점자책 제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매년 대전 지역 대학교와 연계한 채용 설명회 개최 ▲대전 지역 소재 직업계고 학생 대상 ‘일자리 매칭데이’ 개최를 통해 지역 학생들의 취업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Q. 개인적으로 대덕구에 대한 느낌을 말씀해주신다면?

저는 대전 토박이이자 대덕구 소재 동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해 대덕구와는 인연이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과 신탄진 벚꽃 구경은 물론 자전거를 타고 대청호에도 많이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족들과 함께 계족산 황톳길 맨발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덕구의 숨은 명소와 맛집을 찾아다니며 진정한 대덕구의 매력에 빠져보고자 합니다.

Q. 끝으로 대전 시민 및 대덕구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고령화 시대에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북대전지사를 방문해 국민연금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시민께서 더 많은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북대전지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죄 없는 안전한 우리동네를 위해"

대덕구 자율방범대연합회

1953년 주민 야경제도로 시작... 2023년 정식 법정 단체로 발돋움
연합회 322명 대원, 범죄 예방 현장 신고·순찰 등 자발적 봉사 나서
2023년 범죄 발생 건수, 2018년 대비 22.7%나 감소 '눈길'
명절 맞이 방법대별 사회적 소외계층에 위문품을 전달 등 이웃사랑 실천도
"위험한 상황 발생할 수 있음에도 주민 안전 먼저... 범죄없는 대덕구 만들 것"

권호열

대덕구 자율방범대연합회 연합대장



최근 이상 동기 범죄(문지마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자신이 사는 동네를 범죄로부터 안전한 동네로 만들기 위해 꾸준히 봉사의 삶을 실천하는 단체가 있다. 바로 대덕구 자율방범대연합회(연합대장 권호열)다.

대덕구 자율방범대연합회는 2025년 6월 15일 기준 총 18개 대에서 총 322명의 대원이 지역에서 ▲청소년 선도 귀가 조치 ▲음주자 귀가 조치 ▲가출 청소년 귀가 조치, 싸움 와해 조치 등은 물론 ▲길 안내 ▲어르신 교통안전 보호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 현장 신고 ▲등하굣길 안전 지도 및 학교 주변 순찰 ▲지역 행사 시 질서유지를 위한 교통정리 및 주차 관리 ▲홀몸 어르신 돌봐드리기 등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가 봉사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사실 자율방범대는 지난 1953년 '주민 야경제도'로 시작해 72년간 지역 치안 보조 역할을 담당해 온 봉사단체로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이후 1990년 지역경찰관서에 소속되는 정식 단체로 발돋움하는 데 이어 2022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023년부터 지구대·파출소 소속 정식 법정 단체가 됐다.

특히, 자율방범대는 공동체 치안 개념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네 안전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하려면 우선 자율방범대장이 경찰서장에게 추천해 결격사유가 없으면 위촉장을 받게 되며, 대원들은 위급할 때 필요한 응급처치 교육 등 연간 12시간씩 방법 활동을 위한 의무교육도 받아야 한다.

지난 1997년 대덕구 덕암동에 이사를 오자마자 곧바로 덕암동자율방범대 일원이 됐다는 권호열 연합대장은 약 28년간 덕암동을 범죄 없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난 2023년 자율방범대가 정식 법정단체로 출범하면서 초대 연합대장을 맡아 대덕구 전역에 걸친 자율방범 활동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권호열 연합대장은 "저 또한 세탁업에 종사하면서 자율방범대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처럼 대원 대부분이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 휴식 시간을 쪼개 봉사에 나서고 있다"며 "때론 혹한의 냉기를 뚫고, 또 폭염 속에 속옷을 땀에 적셔가면서 묵묵히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대원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실제, 대덕구의 2023년 범죄 발생 건수가 2018년 대비 22.7%나 줄어드는 등 대덕구 전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평화로운 밤거리가 조성된 것도

자율방범대원들의 자발적 순찰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연합회 소속 18개 자율방범대장은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월례회를 갖는다.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우범지역 및 순찰 강화를 요청하는 지역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하고 건의 사항도 듣는다. 또, 순찰할 때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등의 의견을 나누는 등 월례회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한다.

아울러 연 2회에 걸쳐 대덕구연합회 전체 대원들이 참여하는 구청, 경찰서 합동 특별 순찰 활동도 펼치고 있다.

간혹 순찰 중 자율방범대원들의 선도 활동에 반항하는 청소년들과 마주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3~4인이 함께 순찰하는 만큼 위험한 순간이 오더라도 즉시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상시 위기 상황 대처 교육을 꾸준히 받고 있다고 한다.

각 방법대별로 단결심이 매우 높고,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모인 만큼 대덕구 자율방범대연합회도 자연스럽게 원활한 소통과 화합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권 연합대장은 "각 방법대를 직접 방문해 격려도 하고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고 있다"라며 "애로사항을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의 책무라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때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구민들의 안전하고 포근한 밤을 위해 묵묵히 순찰에 나서고 있는 대덕구 자율방범대연합회 대원들은 설날 및 추석에는 방법대별로 사회적 소외계층, 홀몸 어르신,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넉넉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들이 이 같은 활동을 나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로 귀결된다. 바로 대덕구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다.

권호열 연합대장은 "자율방범대는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소중한 파트너다. 모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필요하다"라며 "밤거리에서 반짝이는 '불봉 물결'을 마주친다면 큰소리로 격려하는 한마디라도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 격려를 자양분 삼아 범죄 없는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 대 상** 관내 도심지에 있는 단독주택
- 내 용** 대문, 담장 철거하여 주차공간 확보
- 기 간**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 지 원 기 준** 유형별 지원한도액(설치비용 90% 범위 내 지원)
- | 구 분 | 담장철거(개조) | | 대문철거(개조) | | 이웃간경계 담장 철거(개조) | |
|---------|-----------------|-----------------|-----------------|-----------------|------------------|------------------|
| | 직각형 (2.5m×5.0m) | 평행형 (2.0m×6.0m) | 직각형 (2.5m×5.0m) | 평행형 (2.0m×6.0m) | 직각형 (3.0m×11.0m) | 평행형 (3.0m×11.0m) |
| 최대지원 금액 | 110만원 | 150만원 | 170만원 | | 200만원 | |
- ※ 추가 주차면수 마다 최대 60만원 추가 지원(최대 2면까지)
- ※ 주차장용도 외 사용금지(보조금사업 설치 후 5년간 용도변경 및 폐쇄 불가능)
- 문 의** 대덕구 교통과 주차시설팀(☎042-608-5295)

국가암건강검진으로

건강더하기! 행복더하기!



- 검 진 기 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 검 진 대 상**
- | | |
|----------------------------|---|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 | 무료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57,000원 이하 |
| 건강보험가입자 중 상위 50% | 본인부담금 10%
(검진비 90% 지원) |
- 검 진 기 관** 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
- 검 진 방 법** 전국 암 검진기관 병·의원 사전예약 필수, 신분증 지참
- 문 의** 대덕구보건소 보건행정과(☎042-608-5474)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 사 업 기 간** 2025년 12월 5일까지 (예산 소진시까지)
- 사 업 량** 217대
- 지 원 금 액** 저소득층·취약계층 60만원/대
- 지 원 대 상** 2025년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 신 청 방 법**
- 온라인 접수 : www.ecosq.or.kr/boiler/ 에코스퀘어
 - 우편 접수 및 방문 신청 : 대전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환경과
- 문 의** 대덕구 환경과(☎042-608-6864)

신탄진 ↔ 인천공항, 서울 강남 버스 운행 안내



- 인천공항버스 : 티머니GO 앱 또는 버스타고 앱 (현장예매 불가, 전자승차권 발권 탑승)
- 서울(강남) 고속버스 : 티머니GO 앱 또는 고속버스티머니 앱 (신탄진 탑승 시 교통기능 있는 신용카드 결제 가능, 서울강남티머니 현장 발권 가능)

니파바이러스 제1급 감염병 신규 지정 안내

치명률이 높고 급성 뇌염 우려가 큰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내 상용화된 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 감 염 경 로** 니파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 또는 사람의 혈액, 체액 등의 접촉을 통해 감염
- 증 상** 초기에는 발열, 근육통, 구토,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현기증, 졸음, 의식상태 변화 등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예 방 수 칙**
- 과일박쥐, 돼지 등의 (야생)동물 접촉 주의
 - 생 대추야자수액 섭취 금지
 - 아픈 사람과 접촉 삼가기
 -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오염된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 문 의** 대덕구보건소 보건행정과(☎042-608-4454)

2025-2026절기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접 종 백 신

-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3가 백신 1회
- 코로나19: 화이자 LP.8.1 또는 모더나 LP.8.1 백신 1회



대상 및 접종기간

- 75세 이상 (1950. 12. 31. 이전 출생) → 2025. 10. 15.(수) ~ 2026. 4. 30.(목)
- 70~74세 (1951. 1. 1.~1955. 12. 31.출생) → 2025. 10. 20.(월) ~ 2026. 4. 30.(목)
- 65~69세 (1956. 1. 1.~1960. 12. 31.출생) → 2025. 10. 22.(수) ~ 2026. 4. 30.(목)

- 장 소**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문 의**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82, 5484)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사업



- 검 진 기 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 지 원 대 상**
- 일반건강검진: 20세 ~ 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주 및 세대원
 - 의료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주 및 세대원
- 검 진 주 기** 2년마다 출생년도에 따라 짝/홀수연도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성/연령별 검진항목은 해당연령에 실시
- 검 진 기 관** 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
- 검 진 방 법** 전국 암 검진기관 병·의원 사전예약 필수, 신분증 지참
- 문 의** 대덕구보건소 보건행정과(☎042-608-5474)